사 설

"화쟁정신으로 풀자"

1998년 11월 11일은 한국 불교사에 또다시 종단분규 사태라는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회의 귀감이자 불자들의 귀의처인 스님들이 수행의 상징인 승복을 입은채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니 불교계로서는 이보다 더 큰 수치와 망신이 있을 수가 없다. 불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전근대적인 난투극이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불자들이나 국민들은 이제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조계종 총무원장이란 자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종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번 사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3선공방 다툼과 종단내부 갈등으로 일어났다. 총무원건물 점거사태는 총무원장 입후보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되어, 물리적 충돌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서글픈 일이다. 이번 사태가 지난 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선 후 종단분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총무원장의 3선 여부는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의 법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며, 후보자 적격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종회의원과 선거인단이 선출한 총무원장의 인준권은 원로회의에서 가지고 있으니 각 후보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원로회의, 중앙종회, 본사연합회 등 종단의 중립적이고 권위있는 단체에서 충분한 대화를 유도하고 광범위한 자문을 통해 적법하게 일을 해 나간다면 풀리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산중에서 부처님법을 갈고 닦으며 수행에 전념하는 수좌들과 천만 불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은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사태가 유발한 데 대해 네탓만을 하기보다 연기론적인 인과법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폭력이나 강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회가 새로 선출된 종회의원에 의하여 출범하였고, 속세의 상원격인 원로회의가 살아있다. 이러한 종단의 기구들과 본사주지 등 교계의 지도자들이 부처님의 인과법에 따라 중도적 입장에서 여법하게 오늘의 사태를 가능한 빨리 수습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중앙종회가 13일 종회해산권을 쥔 원로회의 관련법을 급하게 개정하고 원로회의는 원로회의대로 회동을 할 계획으로 있어 원로회의와 종회의 관계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종단의 현 상황을 안정으로 돌려놓을 공식기관들마저 다른 길을 간다면 조계종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지 모른다. 종단의 원로중진,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등의 지도자 계층이 '종단화합'이란 대의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

IMF체제 속에서 고통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보다 많은 중생을 부처님법으로 귀의시키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승가의 역할이 아닌가.

새 세기인 21세기가 눈앞에 도래했는데 불교계에서 이 무슨 추태인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사부대중이 화쟁적이고 대승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더 이상 파국을 막는 지혜를 짜내기를 바란다.

꼬리무는 성명전

월주스님 "불법폭력사태 엄중 단죄"
개혁회의 "종단 제도개혁 제2 정화"
지선스님 "3선 반대 · 개혁회의 인정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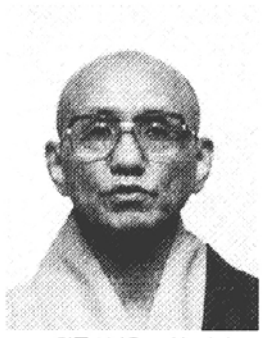
11일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을 접수한 후부터 정화개혁회의와 총무원장 후보 월주·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가 각각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성명을 내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출범한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탄)는 11일 총무원 접수 직후인 오후 6시30분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화개혁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화개혁회의의 조속한 구성으로 종단내부의 불합리한 제도개혁과 해종세력에 대한 단호한 경책을 통해 제2 정화불사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월주스님 선거대책본부도 오후 8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정교시 봉행을 빌미로 폭력적인 방법을 써 종권을 탈취하려는 정화개혁회의의 불법적 폭력사태는 엄중하게 단죄하고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도 같은 시각 "3선반대의 종정교시는 봉행돼야 하되 현 종단체제와 종헌종법에 위배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자의적으로 구성된 '정화개혁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주스님은 11일 저녁 8시 조계사 인근 선거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정화개혁회의가 기자회견을 마련,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의 글'과 '전 종도들에게 드리는 글' '종정예하를 폭력배로 막으려한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향후 선거일정은 원천무효라 주장했다.

12일 선거가 무산되자 정화개혁회의 월주스님선거대책본부,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간의 공방이 잇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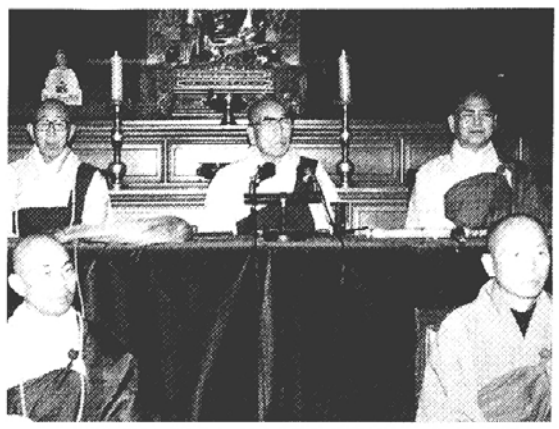
월주스님선거대책본부는 오후 5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의 불법점거는 원상복구될 것이며 중앙종회, 본사주지회의, 원로회의 등의 총의를 모아 종헌종법수호의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탄스님은 11일 저녁6시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도 선거를 통한 총무원장 선출과 월주스님 3선반대 및 즉각 사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화개혁회의는 13일 중앙종회가 원로회의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 "원로회의법 개정은 종헌 제 43조를 무시한 것"이라 공박했다. 정화개혁회의는 또 이날 종회가 2건의 결의문을 낸 것 등을 비난하며 해종행위라 규탄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두번째줄가운데)이 12일 상경 총무원 청사 1층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월하스님 좌측은 원로의원 지종스님, 우측은 정화개혁회의상임의장 월탄스님, 이랫줄 우측은 송광사부방장 현호스님 좌측은 제주 약천사 주지 혜인스님.

"개혁회의 지지-3선 부당"

월하종정 12일 총무원서 담화문 발표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12일 정화개혁회의가 접수한 총무원 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아침 항공기편으로 통도사에서 상경한 월하스님은 12시 30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사법의 혹운이 정법의 일광을 가리니 청중이 불어 다시 대중에게 온기를 북돋움이라. 작금의 대사는 청정한 승풍을 진작하고 승가의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의분의 처사였다. 이로 말미암아 전국의 불자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우선 사과드리며 목하 전 종도들은 금일부터 여래의 사도로서 미혹한 시시비비를 떠나 청정교단을 건설하는데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월하스님은 또 "지혜의 연을 맺으면 선의 보를 받고 탐착의 우를 범하면 응분의 과를 받는 것이 불법의 지고한 이치이니 스스로 봉행하라. 사부대중은 이로써 일심으로 불조의 혜명을 봉대하여 제2의 정화불사에 수희 동참하길 바라노라"고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 앞서 송광사 부방장 현호스님에게 파사현정을 의미하는 장군죽비를 봉정받은 월하스님은 다시 죽비를 정화개혁회의 상임의장 월탄스님에게 전했다. 월하스님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정화개혁회의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니 내뜻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본래의 부처님 뜻을 잘 받들고 종헌종법대로 살면 된다"며 "월주스님의 3선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월하스님의 총무원 청사 방문과 담화문 발표는 정화개혁회의의 행보에 적잖은 힘을 실어 주었다는 평이다.

12일 정오쯤에 조계사에 도착한 월하스님은 조계사 법당에 들러 부처님전에 3배를 올린후 월탄스님등 정화개혁회의 중진 스님들로부터 3배를 받았다.

임연태 기자

"폭력은 안된다…종단안정 우선"

'조계종사태'를 보는 각 단체 입장

11일 승려대회와 정화개혁회의 발족, 총무원청사 접수 등으로 급박하게 흐르고 있는 종단현실을 바라보는 교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번 사태 해결의 가장 비중있는 열쇠로 주목되고 있는 원로회의는 아직 큰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4일 오후2시 서울에서 월하스님이 초청하는 회의를 가질 계획이 발표된 상태다.

12일 오후3시 긴급 소집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법장 수덕사)은 명칭을 본사주지연합회로 바꾸고 회장단을 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연합회는 법장, 혜광, 성덕, 밀운, 중원스님을 대표단으로 구성,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정화개혁회의 소속 종진스님, 지선스님, 중앙종회의장단 등을 만나 종단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들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종단의 수습과 화합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본사주지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종단현실과 관련 심한 우려를 표하며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승가대총동문회와 총학생회는 13일 정화불사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무원장 임기를 5년단임으로 종헌을 개정하라 △승려노후복지 대책을 조속히 입법 실천하라 △종단의 교육체계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13일 '현 조계종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성명을 통해 "더 이상의 폭력은 안된다"고 강조하며 총무원측의 신도 및 경비용역업체 직원 동원을 비판했다. 또 빠른 시일내에 원로회의나 중앙종회가 원만하게 상황을 수습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전국신도회를 비롯한 재가 신도단체들은 조계종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한 신도단체장은 "침묵도 웅변이 될 수 있다"며 하루속히 종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승가의 노력을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원로회의 14일 서울서 열려

조계종 원로회의가 종정 월하스님 초청형식으로 14일 서울 구룡사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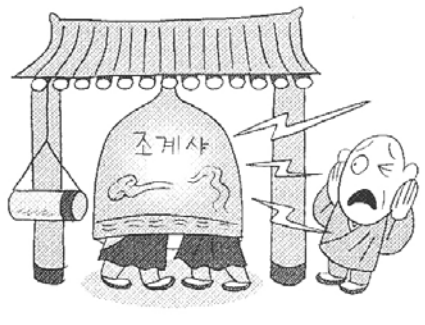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종단의 현상황에 대한 원로의원들의 입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원로의원 스님들은 8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의장 혜암스님과 간담회를 갖고 종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로스님들은 종단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종헌종법대로 선거가 치러진 뒤 당선자 인준 문제를 원로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과 함께 승려대회는 평화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간담회에는 혜암스님을 비롯 법전, 일타, 탄성, 종산, 도원, 녹원, 청하스님등 8명이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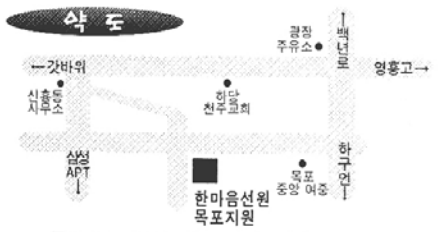
이 소리가 아닌데…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룡 합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점안 · 개원 대법회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 사부대중은
대행큰스님의 가르침을
세세생생 이어나가고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목포지원 점안 · 개원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행큰스님을 모신 개원법회에 많은 동참 바라오며
이 법연으로 고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점안 · 개원법회 ●
■ 일 시 : 1998.11.22 (음 10.4)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목포 실내 체육관
■ 주 최 :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법회안내
정기법회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초하루 · 보름법회 : 오전 10시 30분
법형제 법회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회 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학생회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어린이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금요법회 : 기초 교리
· 사시 예불 : 매일 오전 10시 30분
· 여자불자님 : 각 신행회를 구성, 정진하고 있으니 종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약도


· 주소 : HanMaUm Seon Center Mok-po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 전화 : (0631)284-1771 / 팩스 : (0631)284-1770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사부대중 삼배